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35

“우리도 뛰는다”

- 광주정신지체인 애호협회

‘3월의 말아톤’...감동의 도전은 계속된다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의 장이다. 이러한 스포츠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큰 감동을 준다.

특히나 신체적 한계를 딛고 스포츠의 벽을 넘어서는 장애인의 도전기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한다. 그래서인지 장애인의 스포츠 성공기는 종종 진한 감동을 담아낸 영화로도 태어난다.

17명 모두 손잡고 뛰기로

장애인의 장애 극복기를 그린 영화 ‘말아톤’(감독 정운철·주연 조승우)이 전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맹방의 기쁨이’(감독 권수경·주연 신현준)도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다. 모두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다.

오는 3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아톤’이 또 시작된다. 이번엔 17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달린다.

도전 무대는 오는 3월 1일 광주 일원에서 열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주인공은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광주정신지체인 애호협회(이하 애호협회) 소속 양현석(23), 한성주(17), 정기훈(30), 윤석출(41), 이동훈(14), 권희택(24), 손종민(18), 박성태(19), 양승우(19), 임정재(18), 정인규(19), 오성근(17), 이동훈(18·이상 남), 송민주(22), 박수희(18), 최기쁨(23), 이영심(35)씨다.

1~3급 지적장애인으로 간질, 정서장애, 청각장애, 자폐 등 중증장애도 안고 있다.

이들이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5년.

첫 스타트는 양현석씨가 끊었다. ‘과잉행동장애(자폐증)’를 앓고 있는 양씨는 영화 ‘말아톤’을 보고 난 뒤부터 달리기엔 집중했다.

양씨를 돌보고 있는 애호협회 회원들도 양씨의 마라톤 도전기에 힘을 보탤다.

‘애호 협회’ 노미향(여·46)사무국장은 우선 위험성이 있는 야외훈련을 대신해 사무실에 러닝머신을 설치했고 하루 연습량은 10km로 제한했다. 양씨는 1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은 물론 정신 치료에

도 큰 효과를 봤다.

첫 출발은 양씨 혼자였지만 어느새 주변에 함께 달리는 애호협회 친구들이 늘어났다.

훈련 시작 1년만인 지난해 3월 양씨 등 정신지체 장애인 6명은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했고, 풀코스는 아니지만 10km를 모두 완주했다.

러닝머신으로 매일 훈련

이를 계기로 지난해에만 모두 4개 대회를 뛰었다. 다시 1년이 흐른 지금은 이들 모두 아마추어로는 중급 이상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페이스 조절 능력이 없다. 목표를 세우면 자물적으로 행동하는 자폐환자의 특성 때문에 앞만 보고 뛰어가다 힘들면 그냥 주저앉고 만다. 그대로 놔두면 자칫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마라톤에선 ‘애호협회’ 직원 17명이 이들의 옆에서 뛰며 속도조율을 돕기로 했다.

노 사무국장은 “외부 활동이 제한된 정서장애인의 경우 소비 못한 에너지가 넘쳐 각종 스트레스에



지난 2006년 열린 제41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광주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회원들이 끝인점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폐증’ 양현석씨 10km 도전

시달린다”며 “마라톤을 시작한 뒤부터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고 활동량도 많아지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에 소질이 있는(양)현석씨가 풀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라는 노 사무국장은 “앞으로 3·1절 대회를 땀어린 마라톤과의 인연을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게 목표”라고 소박한 꿈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美 부동산업체 현대구단 인수 프로야구 8개구단 부정적

미국에 기반을 둔 부동산투자업체가 운영난에 빠진 현대 유니콘스 인수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프로야구 각 구단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본부장은 24일 “일부 매체에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는 외국 부동산투자개발업체의 인수 의사가 보도된 뒤 8개 구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나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8개 구단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회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업체로서 과연 야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이 업체에서 정식으로 인수 제안이 오면 31일 KBO 이사회에서 공식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의 A구단 사장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팬터 야구팬만 더 멧드는게 아닌가 싶다”고

밝힌 뒤 “미국 부동산업체가 왜 한국 야구단을 인수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제 인수 의사가 있으면 KBO와 사전 조율부터 해야 하는데 언론플레이부터 펼치는게 ‘치고 빠지는’ 홍보를 위한 방편인지 의문이고, 연고지를 수원에서 서울로 옮긴 뒤 비싼 값에 재판매하겠다는 투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B구단 사장은 “현대야구단이 워낙 싼 값에 매물로 나오다 보니 여러 군데서 관심을 보이는 모양인데 우선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B사장은 “그 업체가 현대를 인수해 홈을 대주주들의 연고지인 전주로 옮긴다면 지방 야구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 서울로 옮겨 구단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할 계획이라면 승인할 수 없다”고 뜻을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선수단이 24일 광주구장에서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 출발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KIA 2차 전훈팀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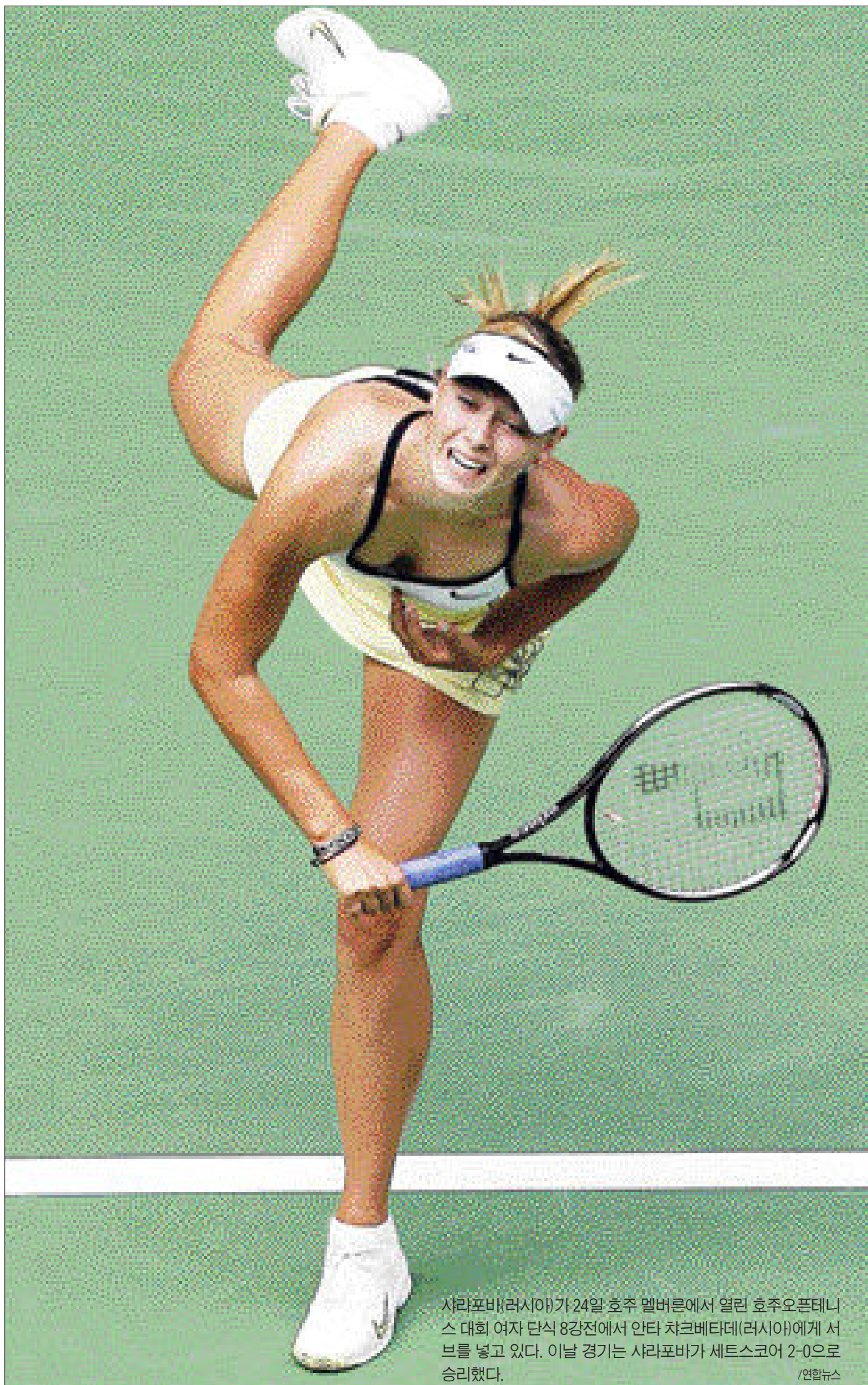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등 코칭스태프 6명과 이종범 등 야수 15명 등 2차 야수조 22명이 25일 전지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입성한다.

최근 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 통증을 호소한 외야수 이용규는 치료를 위해 1주 늦게 떠날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곁에서 훈련

중인 이대진, 한기주, 김진우 등 11명도 25일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한다.

한편 지난 19일 일본 미야자키로 떠난 투수·포수조는 미야자키현 휴가시 오쿠라가 하마구장에서 ‘3일 훈련-1일 휴식’ 일정으로 2007 시즌을 대비한 바쁜 훈련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KIA 선수단은 오는 2월 28일 휴가사에서 미야자키시로 이동한 뒤 3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샤라포바 4강 진출

호주오픈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2위·러시아)와 벨기에 마녀 킴 클리스테르스(5위)가 총상금 147억원이 걸린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4강에서 맞붙는다.

국내 주니어 랭킹 1, 3위인 임용규(양동중)-조승재(마포고)조는 주니어 남자 복식에서 7번 시드의 차니 하무이-데니스 라홀라(이상 미국)조에 2-1(0-6 6-1 7-6(7-4))로 역전승을 일궈내며 4강에 진출했다.

샤라포바는 24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계속된 대회 10일째 8강전에서 같은 나라의 안타 차크베타데(13위)를 2-0(7-6(7-5) 7-5)으로 어렵게 따돌리고 준결승에 올랐다.

킴 클리스테르스도 이어 벌어진 준준결승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 대회를 3연패한 마르티나 힝기스(7위·스위스)에게 2-1(3-6 6-4 6-3) 역전승을 거두고 4강 막차를 땀었다. 호주오픈과 인연이 깊은 힝기스는 2년 연속 8강에서 클리스테르스의 벽에 무너졌다.

이로써 호주 오픈 여자 단식의 패권은 샤라포바-클리스테르스, 세레나 윌리엄스(81위·미국)-니콜 피디소바(12위·체코)의 대결로 압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허리부상 김연아 동계체전 출전

허리부상으로 참촌(長春) 동계 아시안게임 출전을 포기한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48)씨는 24일 “그동안 세계대회 일정과 부상으로 국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서 올해 동계체전만큼은 출전하기로 결정해 이미 출전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지난해 2월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1년 만에 경기도 대표 선수로 국내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박씨는 “동계체전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동해 오는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3.19~25·일본 도쿄)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세계 선수권대회가 끝나면 귀국해 짐을 꾸린 뒤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장기 전지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연아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현대카드 분사 10층 회의실에서 인터네트웍스 페 경기모임을 겸한 피겨 유망주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기로 했다.

샤라포바(러시아)가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안타 차크베타데(러시아)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이날 경기는 샤라포바가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